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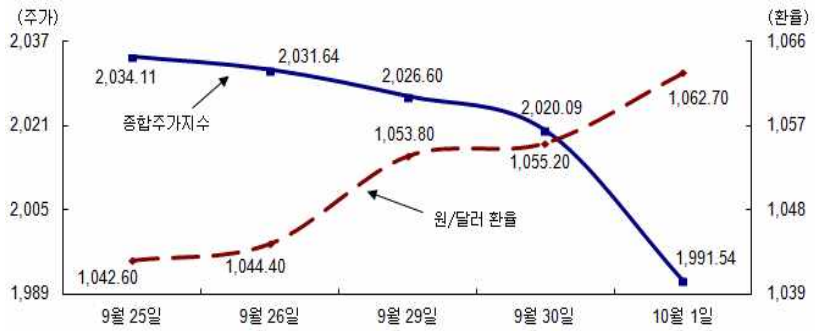
#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과 경제전망
- 경기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25~10.1)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30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2072-6230, swan@hri.co.kr)  
 □ 작성 : 이 준 협 경제동향분석실장 외 (2072-6219, sododuk1@hri.co.kr)

## □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

### ■ 명과 암이 공존하는 한국 경제

2015년에 한국 경제는 희망과 우려가 교차할 전망이다.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에 가입,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는 것은 가장 큰 희망이다. 4년 연속 고용률 신기록을 달성해 '고용률 70%'에 한발 더 다가서고, 주택경기 활성화는 내수 회복의 비타민이 될 것이다. 반면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것이다. 한국수출은 수요부족發 세계경기 장기부진과 대중국 수출 부진, 엔저 공포로 힘든 한해를 겪을 것이다.

### ■ 2015년 한국 경제의 주요 특징

**(‘30-50 클럽’ 가입)** 2015년에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 세계 일곱 번째로 30-50클럽에 가입할 전망이다. 2006년에 2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9년 만의 쾌거로서, 주요선진국(G7) 중 캐나다를 제외한 6개국이 30-50 클럽 국가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재정과 부채, 물가 등 거시경제 부문에서 안정성이 유지되고, 국가신용등급도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4년 연속 고용률 신기록)** 중장년층과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대거 이동하면서 고용구조가 크게 개선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서 15~64세 고용률이 2015년에 66.2%를 기록,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할 전망이다. 고용의 양적 확대에 이어 질까지 개선될 경우 가계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경기가 내수회복의 비타민)** 2015년에 주택시장 회복세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내수회복에 활력소가 될 것이다. 주택경기 개선으로 건설경기 회복세가 견고해지고,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및 건설경기 개선에 따른 고용 증가로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주택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이사 및 리모델링, 임대·금융서비스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것이다.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갭이 8분기 동안 이어지고 있으며, 실제물가가 잠재물가를 밑도는 마이너스 물가갭 또한 12분기나 지속되고 있다.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끊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2015년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필요가 있다.

**(세계경제, 수요부족發 장기부진 우려)** 2015년에 세계경제는 소비, 투자 등 유효수요가 부족하여 경기부진이 장기화되는 현상(secular stagnation)이 우려된다. 주요국의 소비증가율이 장기평균을 하회하고 있으며, 미래의 경기회복 기대감이 낮아 총투자가 총저축을 하회하는 현상도 지속될 것이다.

**(중국에 발목 잡힌 수출)** 과거에는 한국의 총수출을 견인하던 중국이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 총수출을 끌어내리고 있다.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인한 자급률 상승, 가공무역 축소 등의 교역구조 변화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2015년 이후에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다.

**(엔저공포와 수출경쟁력 약화)** 2015년에도 원/엔 환율의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과 일본의 수출경합도는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2015년에 일본기업이 본격적으로 수출단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크며, 그만큼 한국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다. 2015년에 원/100엔 환율이 평균 950원으로 떨어질 경우 한국 총수출이 4.2% 감소하고, 900원까지 떨어질 경우 8.8%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

## ■ 시사점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탈출하기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첫째**, 2015년 예산을 확대 편성하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한다. **둘째**,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을 강화하여 자산효과로 인한 민간 소비 회복, 건설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해야 한다. **셋째**, 고용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을 개선하여 가계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환율 하락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 미세조정이 필요하며, 균형환율 수준에서 과도하게 이탈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잠재성장률 제고 정책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한다.

## ■ <별첨> 2015년 경제전망

구 분	2013년 연간	2014년			2015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6.7	1.9	1.8	1.9	1.6	4.3	3.0
설비투자 (%)	-1.5	7.6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7.3	6.1	5.9	6.0	7.3	7.0	7.1
수출 (%)	2.1	2.5	3.7	3.1	4.1	4.7	4.4
소비자물가 (%)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1. 명과 암이 공존하는 한국 경제

### ○ 2015년에 한국 경제는 명과 암이 교차할 것으로 예상

- **한국 경제의 희망** : 세계 일곱 번째로 '30-50 클럽'(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에 가입, 선진국 반열에 올라설 것으로 기대
  - 4년 연속 고용률 신기록을 달성해 '고용률 70%'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것은 물론, 주택경기 활성화가 내수 회복의 비타민이 될 것임
- **한국 경제의 우려** : 저성장·저물가 장기화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될 전망
  - 한국수출은 수요부족發 세계경기 장기부진과 대중국 수출 감소, 엔저 공포로 힘든 한해를 겪을 전망
- **2015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3.6%를 기록,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
  - **내수** : 2014년의 극심한 침체에서 벗어나 민간소비와 건설투자를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나, 설비투자가 둔화되는 등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한 수준
  - **외수** : 세계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원/엔 환율 하락, 對중국 수출 부진 등으로 순수출이 축소될 전망

### ○ 2015년 한국 경제의 명과 암을 일곱 개로 정리하고, 저성장·저물가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시사점 도출

<2015년 국내 경제전망>

구 분	2013년 연간	2014년			2015년(E)		
		상반기	하반기(E)	연간(E)	상반기	하반기	연간
경제성장률 (%)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6.7	1.9	1.8	1.9	1.6	4.3	3.0
설비투자 (%)	-1.5	7.6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7.3	6.1	5.9	6.0	7.3	7.0	7.1
수출 (%)	2.1	2.5	3.7	3.1	4.1	4.7	4.4
소비자물가 (%)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2. 2015년 한국경제의 주요 특징

### ① '30-50 클럽' 가입

○ (의미) 2015년에 한국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인구 5천만 명을 달성하며 '30-50 클럽'의 선진국 대열에 진입

- 한국경제는 안정된 거시경제 환경 등을 기초로 '30-50 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진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내용) 2015년에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안정된 거시경제 환경과 신용등급 상승으로 경제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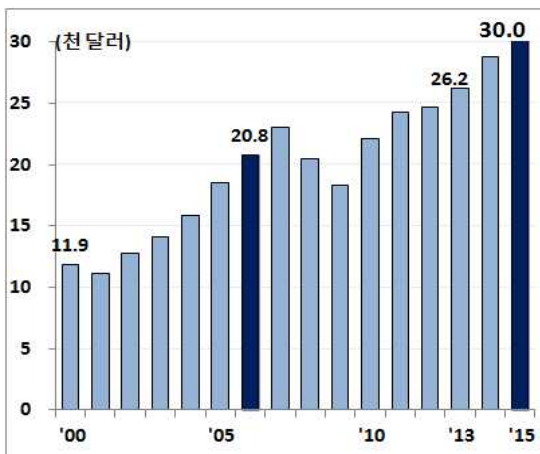
-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 우리나라는 2006년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 이후 9년 만에 3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 2013년에 2만 6,205달러였던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GNI)이 2014년 2만 8,831달러, 2015년에 3만 88달러에 달할 전망<sup>1)</sup>

· 인구는 2012년에 5천만 명을 초과했고 2015년에는 5,062만 명이 될 예상

· 캐나다를 제외한 주요 선진국(G7)국가들이 '30-50 클럽'이며, 2015년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시 7번째 '30-50 클럽'에 진입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추이와 전망>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 2014년 이후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 '30-50클럽' 국가의 1인당 국민소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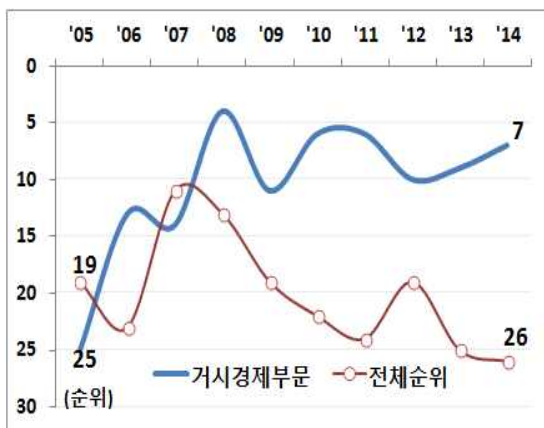
국가	국민소득 달성연도			2013년 (달러)
	2만 달러	3만 달러	4만 달러	
미국	1987	1996 (9년)	2004 (8년)	53,670
영국	1995	2004 (9년)	2006 (2년)	39,140
독일	1990	2004 (14년)	2008 (4년)	46,100
프랑스	1990	2004 (14년)	2008 (4년)	42,250
이탈리아	1992	2005 (13년)	-	34,400
일본	1987	1992 (5년)	1995 (3년)	38,491

자료 : World Bank.  
 주 : ( )는 각국의 1인당 국민소득 달성기간임.

1) 현대경제연구원의 2014~2015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환율 전망치, 최근 3년간 GDP디플레이터 평균치,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기초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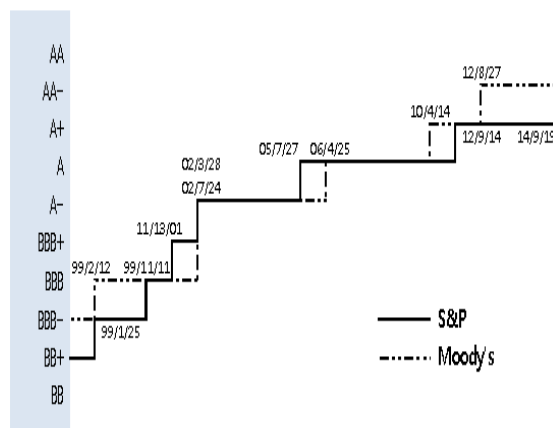
- **건전한 거시경제 환경** : 정부재정과 부채, 물가 등 거시경제부문에서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어 국제 경쟁력 순위 상승 기대
  - 세계경제포럼(WEF)의 국가경쟁력 지표 중 거시경제분야의 순위가 지속 상승하여 2014년 현재 144개국 중 7위에 해당함. 다만 금융시장성숙도 및 노동시장 효율성 등의 평가는 부진하여 전체 순위는 하락
  - 정부부채규모는 GDP대비 36.6%(2012년 결산기준)로, 주요 선진국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7.1%)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전성 유지
  
- **국가신용등급 상승세** : 대외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거시경제안정성과 대외신인도 제고 등으로 국가신용등급 상승 기대
  - 최근 S&P는 우호적인 정책 환경, 양호한 재정건전성, 대외 채무구조 개선 등을 근거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조정2)
  - 향후 S&P가 등급을 AA-로 상향조정할 경우 우리나라는 역대 최초로 3대 국제신용평가사(무디스, 피치, S&P) 모두에서 AA등급을 달성하게 됨
  
- (시사점)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는 성장잠재력과 지속적인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장기적인 경제체질 개선이 시급
  - 총요소생산성을 제고하는 한편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신성장동력 산업을 육성
  - 또한 국가 경영시스템의 효율성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경제구조 개혁을 시급히 추진

<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 평가 추이 >



자료 : WEF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각호.

<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추이 >



자료 : S&P, Moody's.

2) S&P의 '긍정적' 전망은 향후 6~24개월 사이에 등급을 상향조정할 가능성을 내포함. 2011년과 2012년에 피치와 무디스도 우리나라 등급을 '긍정적'으로 조정한 이후 4~10개월 만에 A+ → AA-로 상향 조정하였음.

② 4년 연속 고용률 신기록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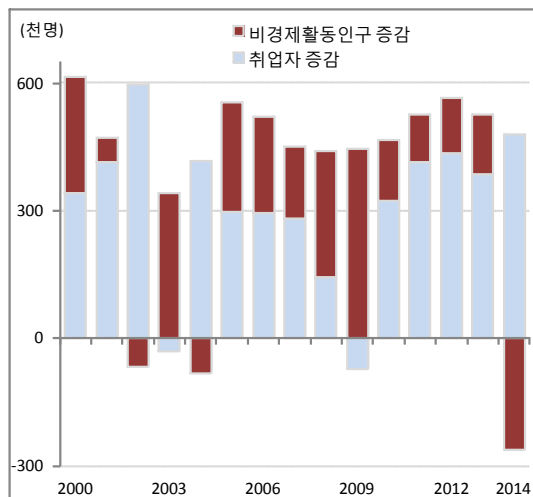
○ (의미) 고용의 구조적 변화와 함께 고용이 양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2015년에도 4년 연속 고용률 신기록을 경신할 것으로 기대

- 취업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고용률도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고, 기존의 고용 취약계층인 여성, 장년층,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 지속

○ (내용) 2015년에는 신규취업자 수 및 고용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가 지속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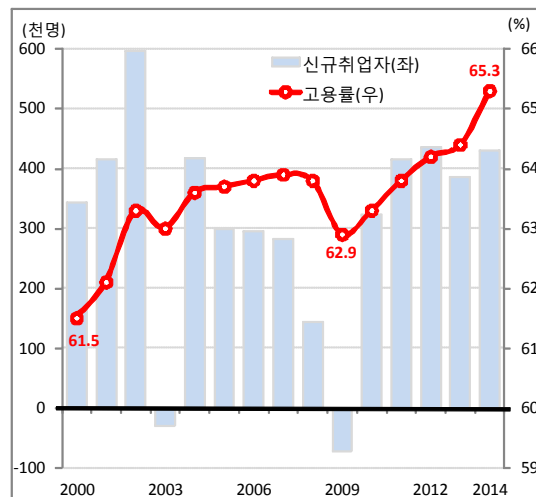
- 고용률 신기록 : 신규취업자가 급증하고 고용률이 4년 연속 최고치 기록
- 중장년층, 여성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 대거 이동하면서 신규취업자수가 2014년 48만 명, 2015년에도 40만 명을 상회할 전망
- 15~64세 고용률은 2012년 64.2%, 2013년 64.4%, 2014년 65.3%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 등으로 66.2%를 기록할 전망

<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증감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2014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신규취업자 및 고용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1 : 고용률은 15~64세 기준임.  
주2 : 2014년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 여성, 장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용 확대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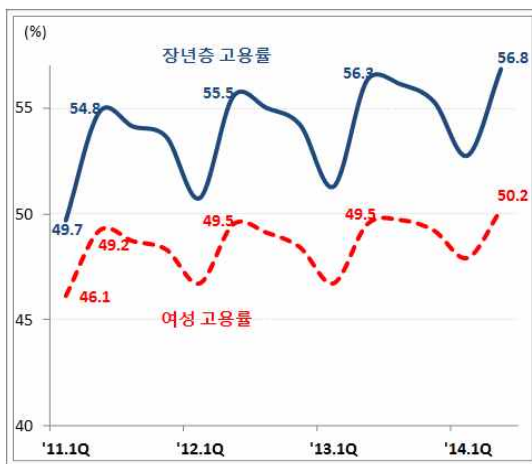
-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어 있던 여성, 장년층 등의 고용 취약계층이 빠르게 고용시장으로 진입하고 있어 고용 호조세를 견인
- 여성의 경력단절 해소 및 유연근로시스템 확대 노력과 장년층의 고용 장려제도 등 정부정책 효과도 긍정적으로 기여
- 여성고용률은 2011년 2/4분기 49.2%에서 2014년 2/4분기 50.2%로 추세적으로 상승해옴
- 장년층 고용률(50세 이상) 도 같은 기간 54.8%에서 56.8%로 상승세를 지속

- 청년 고용도 확장세를 이어갈 전망

- 청년창업지원기금 확대 등으로 청년의 창업 활성화를 진흥하고, 일-학습 병행제 및 청년인턴제 확대를 통해 청년 취업자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
- 고용친화적 정부정책의 효과로 청년 취업자가 2013년 4/4분기를 기점으로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 청년 생산가능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면 큰 폭의 증가세로 판단됨
- 청년 고용률 및 경제활동참가율도 2013년 1/4분기 이후 상승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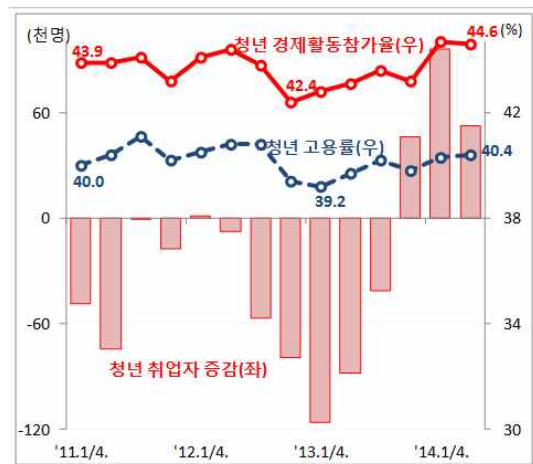
○ (시사점) 고용확대 기조는 소득 향상 및 소비 증대로 이어져 내수경기 회복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임

< 장년층 및 여성 고용률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장년층은 50대 이상을 의미함.

< 청년 고용 추이 >



자료 : 통계청.  
주 : 청년층은 15~29세를 의미함.

### ③ 주택경기가 내수회복의 비타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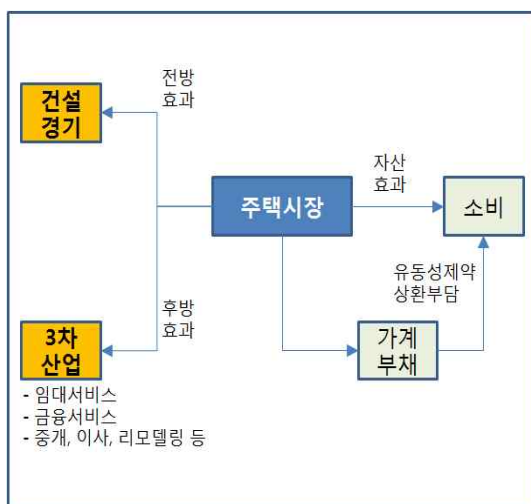
○ (의미) 2015년에 주택시장 회복세가 점차 강해짐에 따라 내수회복에 활력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경제적 파급효과 : 주택시장이 회복되면 주택공급이 늘면서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임대서비스, 금융서비스, 이사·리모델링 등 관련 산업에 긍정적 영향
- 또한 소비심리 개선 및 자산가격 상승효과로 소비회복에 기여

○ (내용) 주택경기 회복은 건설경기과 민간소비, 관련 서비스 생산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내수회복에 기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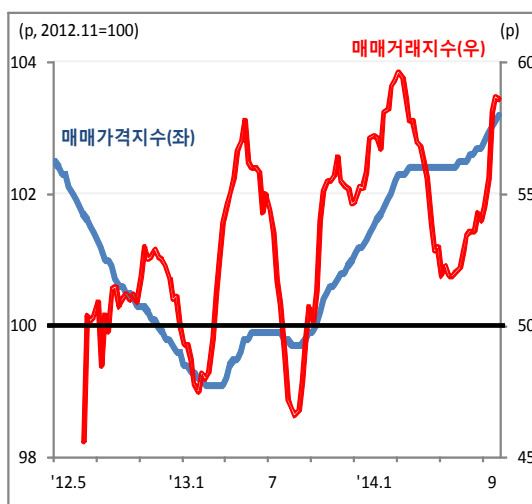
- 주택경기 회복 : 매매가격 상승세 및 주택거래 증가세가 점차 강해지고 있음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2년 5월 이후 하락세를 보이다 2013년 9월 이후 회복세로 전환되었고, 2014년 3월부터 이전 고점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지속
-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도 추세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음. 주택 구매여력 및 구매의사가 개선되고 있음
- 2013년 4.1대책을 시작으로 2014년 9.1대책까지 규제완화를 포함한 주택시장 활성화대책이 지속되면서 2015년에는 주택경기 회복세가 점차 강해질 전망

< 주택시장의 경제적 파급효과 >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 아파트 매매 가격·거래 지수 추이 >



자료: 한국감정원.

주: 매매거래지수=100+“활발함”비중-“한산함”비중.

- **건설경기 회복** : 주택경기 개선으로 건설경기 회복세도 강해질 전망
  - 2014년 1~7월 주택착공 실적이 2,415만 $m^2$ 로 전년동기대비 12.3% 증가하였고, 분양승인 실적도 16.5만 호로 17.3% 증가세 지속
  - 주택준공 실적이 1~7월에 24.3만 호로 25.6% 증가하였으나, 미분양주택이 2008년 12월 16.6만 호에서 2014년 7월 5.1만 호로 크게 줄어 건설경기에 청신호
  - 정부의 9.1대책으로 재건축 및 리모델링 수요가 급증할 전망
  - 특히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까지 이어진 건설수주 급감의 악영향이 2015년 하반기부터 사라지면서 건설경기 회복세가 강해질 전망
  
- **관련 3차 산업에 긍정적 영향** : 주택매매거래가 증가됨에 따라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임대, 금융, 중개, 리모델링 등의 서비스 산업에 긍정적 영향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임대서비스 규모가 확대되고, 청약저축 및 주택담보대출 등의 금융서비스 시장에도 긍정적 영향
  - 중개서비스, 이사, 리모델링 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 경기에도 직·간접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 **소비 회복** :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효과, 건설경기 개선에 따른 고용 증가는 소비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나, 가계부채 증가세를 조절할 필요
  - 주택경기는 소비 및 소비자심리와 공행성이 높음. 2010년 상반기 및 2012년 상반기에 주택매매가격이 하락할 때 소비지출 및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 2013년 상반기부터는 주택매매가격과 소비지출액, 소비자심리지수가 동시에 회복
  - 건설업은 생산과 고용 측면에서 기타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 실물경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
  - 다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소비여력이 약화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더 빨리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
  
- (시사점) 내수회복의 활력소인 주택시장이 개선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
  -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장기저리의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 모색
  - 한편 채무상환능력에 맞춰 적절한 규모의 주택담보대출이 이뤄지도록 관리

④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

○ (의미)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 우려 지속

- 디플레이션이란 좁은 의미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뜻하나, 요즘에는 생산·소비·투자 침체 등 경기하강 국면과 연계하여 정의
- 엄밀한 의미에서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는 아니나,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디플레이션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 (내용) 2015년에도 저성장·저물가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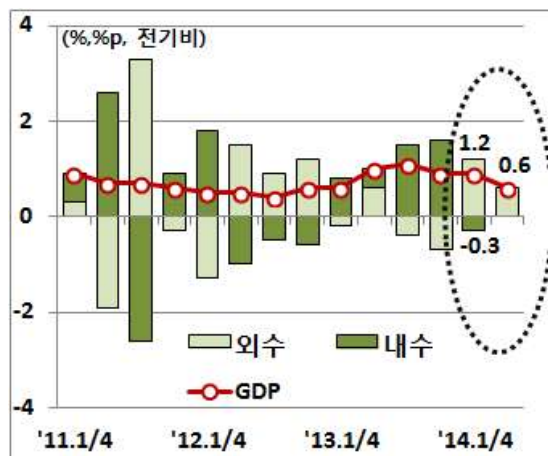
- 저성장 지속 : 실제GDP가 잠재GDP를 밑도는 디플레이션갭 상태가 8분기 지속
  - 2012년 3분기에 실제GDP가 잠재GDP 밑으로 떨어진 이후 8분기 연속으로 디플레이션갭 지속
- 2015년에도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외수도 둔화되면서 디플레이션 갭이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
  - 내수 : 건설투자(1.9%→3.0%)와 민간소비(2.3%→2.8%)가 소폭 개선되나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며, 설비투자(5.7%→5.1%)는 소폭 둔화
  - 고용의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저임금 시간제일자리 등 고용의 질적 악화, 주택경기 활성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은 내수 회복 저해요인으로 작용
  - 외수 : 수출(3.1%→4.4%)과 수입(3.5%→4.9%)이 소폭 개선되나 미진한 수준이며, 수출증가세가 수입증가세보다 약해 순수출 둔화

< 경제성장률과 GDP갭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GDP갭률=(실제GDP-잠재GDP)/잠재G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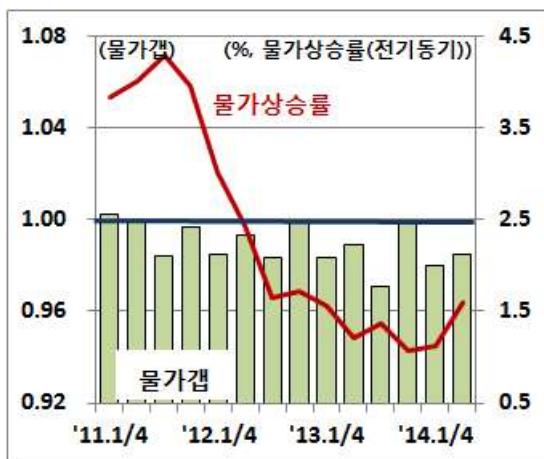
< 내·외수 성장기여도 >



자료 : 한국은행.

- 저물가 지속 : 실제 물가수준이 잠재 물가수준을 밑도는 마이너스 물가갭 상태가 12분기 동안 지속
  - 2012년 3분기에 실제 물가수준이 잠재 물가수준 아래로 떨어진 이후 12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 물가갭을 기록
  
- 2015년 이후에도 경기회복 지연, 원화강세 지속, 원자재가격 하락세 지속 등으로 저물가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될 우려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2년 11월에 1%대로 떨어진 이후 22개월 동안 2%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2015년에도 평균 1.9%에 머물 전망
  - 중앙은행의 목표물가수준이 2.5~3.5%인 점을 감안할 때, 저물가 기조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음을 뜻함
  
- (시사점) 저성장·저물가 기조를 끊고 경제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확장적 정책조합이 강화될 필요
  - 2015년 예산을 한시적으로 대폭 확대 편성하는 것과 더불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함
    - 정부는 7월에 '40조원+ $\alpha$ '라는 재정책대 방안을 내놓았고, 금융통화위원회도 8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하였으나 여전히 경기회복 지연

< 물가상승률과 물가갭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추정.  
 주 : 물가갭은 잠재물가와 실제물가의 비율로, 1보다 작으면 실질 통화량이 장기균형에 비해 적게 공급되어 물가 상승 압력이 낮은 상태

< 원/달러 환율과 수입물가 증감률 >



자료 : 한국은행.  
 주 : 원/달러환율은 일별, 수입물가는 월별 데이터.

⑤ 세계경제, 수요부족發 장기부진 우려

○ (의미) 2015년 세계경제는 수요부족발 장기부진(secular stagnation) 지속 우려

- 수요부족발 장기부진(secular stagnation)이란 소비와 투자 등 유효수요 부족으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상을 의미<sup>3)</sup>

○ (내용) 2015년 세계경제는 소비가 부진하고 저축이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 유효 수요 부족 현상이 장기화될 우려

- 디플레이션 갭 지속 : 최근 주요 선진국은 실제GDP가 잠재GDP에 못 미치는 디플레이션갭이 심각한 수준으로 경제 활력 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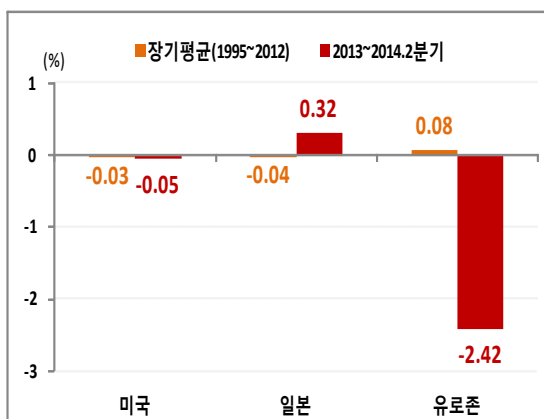
· 2013년 1분기~2014년 2분기까지 미국과 유로존의 GDP갭은 각각 -0.05%, -2.42%이며 특히 유로존의 경제 활력 저하가 심각한 수준

- 소비부진 : 주요국에서 소비 증가율이 장기평균을 하회하며 소비부진 지속

· 만성적인 경기 침체와 인구고령화 현상 심화, 금융위기 이후 부채 감축 경향 등으로 소비 증가율이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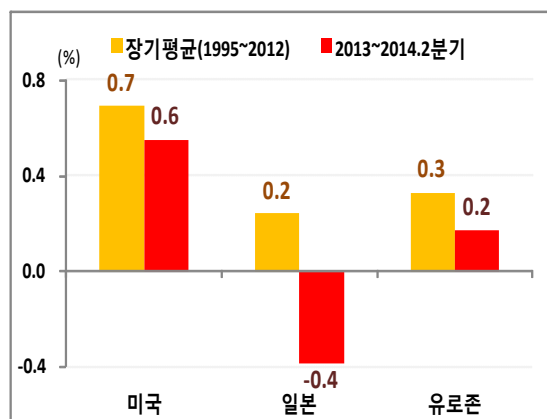
· 미국과 일본, 유로존 등 주요 선진국의 2013~2014년 소비증가율은 장기평균을 하회. 특히 일본은 최근 소비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

< 주요 선진국의 GDP갭률 >



자료: 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Eurostat의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계산  
주: GDP갭률=(실제GDP-잠재GDP)/잠재GDP.

< 주요 선진국의 민간소비 증가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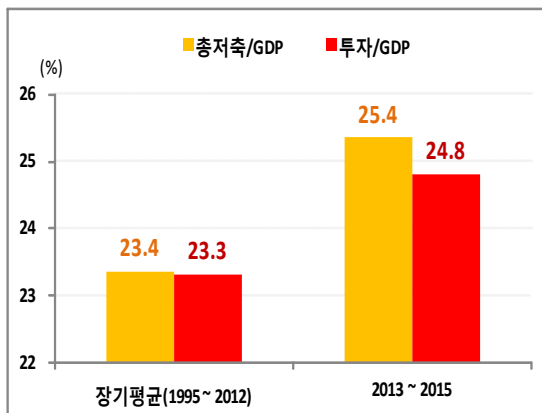


자료: 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Eurostat.  
주: 분기 평균

3) Secular stagnation은 1930년대 미국 대공황으로 인한 미국 경제 침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으로 사용되었고, 2013년 11월 IMF 총회에서 미국 전재무장관인 Lawrens H. Summers가 미국 경기 회복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논하면서 재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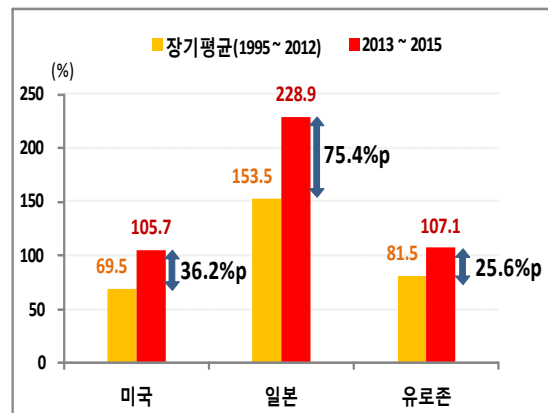
- 투자 부진 :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 투자도 부진한 상황
  - 세계경제의 총저축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요 부족과 향후 경기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총저축 증가가 총투자 확대로 이어지지 않음
  - 1995~2012년에 세계GDP 대비 총저축과 총투자의 비중은 각각 23.4%와 23.3%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
  - 하지만 2013~2015년에는 세계GDP 대비 총저축과 총투자의 비중이 각각 25.4%와 24.8%로 0.6%p의 격차
  
- 재정 투입 한계 : 높은 정부부채 부담으로 재정 투입을 통한 유효수요 부족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
  - 정부의 SOC 투자 확대와 같은 재정투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의존하는 경기 부양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효과는 미미함
  -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복지 부담 증가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가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장기평균(1995~2012년) 대비 2013~2015년에 높음(미국 36.2%p, 일본 75.4%p, 유로존 25.6%p)
  
- (시사점) 세계경제 장기부진으로 인한 국내 수출경기 둔화에 대비하여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내수 시장 확대를 병행
  -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입의존적 수출 구조 개선 및 R&D 투자를 지속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계부채 연착륙, 투자 인센티브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 세계GDP 대비 투자 및 총저축 비중 비교 >



자료 : IMF.

< 주요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비교 >



자료 : OECD.

⑥ 중국에 발목 잡힌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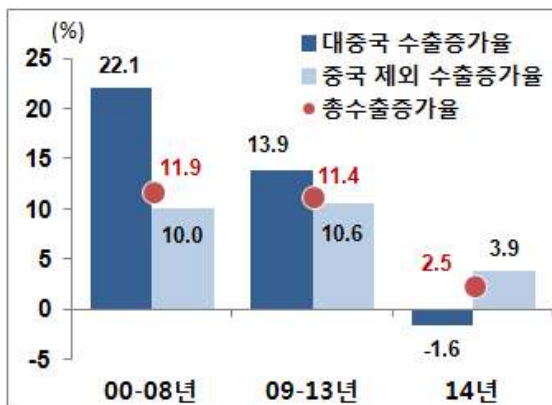
○ (의미) 과거에는 한국의 총수출을 견인하던 중국이 최근에는 오히려 한국 총수출의 발목을 잡는 현상

- 한국의 對중국 수출증가율은 그 동안 다른 지역에 대한 수출증가율보다 높아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을 끌어올리는 효자 노릇을 함
- 하지만 최근에는 對중국 수출증가율이 다른 지역 수출증가율보다 낮아져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을 오히려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내용) 對중국 수출이 부진한 것은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과 산업구조 고도화 및 교역구조 변화에 따른 중국의 대한국 수입 수요 감소가 주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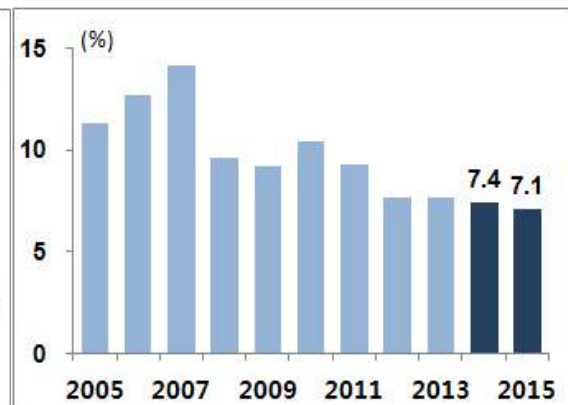
- 중국의 경제성장률 하락 :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중국의 對한국 수입 수요가 하락
- 2007년 14.2%에 달하던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2015년에는 7.1% 성장에 그칠 전망.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 시 한국의 총수출증가율은 1.7%p, 경제성장률은 0.4%p 하락 압력을 받음<sup>4)</sup>
- 특히 중국의 투자 및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보일 전망에 따라 對중국 수출의 95%인 자본재와 중간재를 중심으로 對중국 수출 부진이 우려

< 한국의 지역별 수출증가율 추이 >



자료 : 한국무역협회  
주 : 2014년은 1-8월 누적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 중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



자료 : IMF.  
주 : 2014년 및 2015년은 IMF 전망치.

4) 현대경제연구원(2012), “양날의 칼, 중국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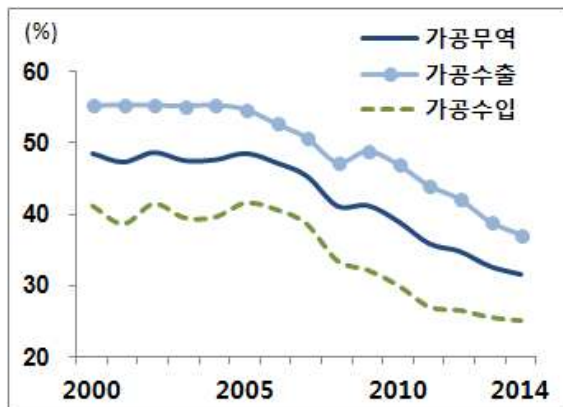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 : 중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로 주력 산업에서의 자급률이 상승하며 중국의 대한국 수입 수요가 감소
  - 중국은 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정책을 통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추진
  - 특히 차세대 IT, 바이오, 신에너지, 첨단장비 제조업, 신소재 등 7대 전략형 신흥산업 육성을 통해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음
  - 이러한 산업구조 고도화는 석유제품, 석유화학, 디스플레이 패널 등 주요 산업에서 자급률 상승으로 이어져 수입 대체 효과가 발생
  
-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 : 중국의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가공무역이 축소되고 있지만 한국의 對중국 수출구조는 가공무역 중심의 중간재 위주
  - 중국 산업의 발전에 따라 단순 가공조립을 위한 중간재 수입 비중이 하락하고 원자재 및 자본재 수입 비중은 상승
  - 이에 따라 2000년 중국 총교역의 48.5%를 차지하던 가공무역 비중이 2014년 상반기 31.5%까지 지속적으로 하락
  - 그러나 한국의 對중국 수출은 중간재 비중이 2013년 73.2%에 달하는 등 주로 가공무역을 위한 중간재 위주로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대응이 미흡
  
- (시사점) 향후 중국 산업 및 교역구조 변화에 대응해 중국 내수 시장 진출 노력이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수출다변화 노력 등이 필요
  -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국 내수시장을 집중 공략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흥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시장을 다변화할 필요

< 중국의 7대 전략형 신흥산업 >

업종	세부 산업 부문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	고효율 에너지절약, 선진 환경보호, 자원순환이용
차세대 IT	차세대 통신, 인터넷망과 융합, 신형 평판디스플레이, 고성능반도체, 첨단소프트웨어 등
바이오	생물의약 및 농업, 제조 등
신에너지	핵, 태양, 풍력, 생물물질 에너지
신에너지 자동차	plug-in 하이브리드자동차, 순전기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등
첨단장비 제조업	항공우주, 해양공정장비, 첨단지능장비
신소재	특수기능 및 고성능복합재료

자료 : 중국 과학기술발전 제2차 5개년 계획

< 중국의 가공무역 비중 추이 >



자료 : CIBC

⑦ 엔저공포와 수출경쟁력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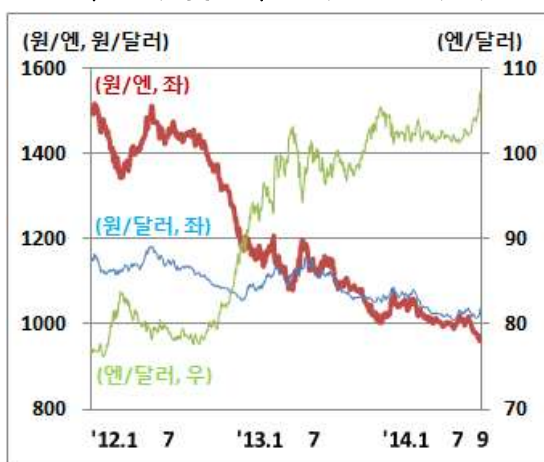
○ (의미) 2015년에 원/100엔 환율이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경쟁력이 악화될 우려

- 내수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원/100엔 환율 하락은 국내 수출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켜 수출 경기까지 부진에 빠뜨릴 우려
- 원/100엔 환율 하락 시 국내기업은 환율 절상률만큼 달러 표시 수출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는 반면, 일본기업은 달러표시 수출 가격 인하 여력이 발생

○ (내용) 원화 강세와 엔화 약세 지속으로 원/100엔 환율이 하락하여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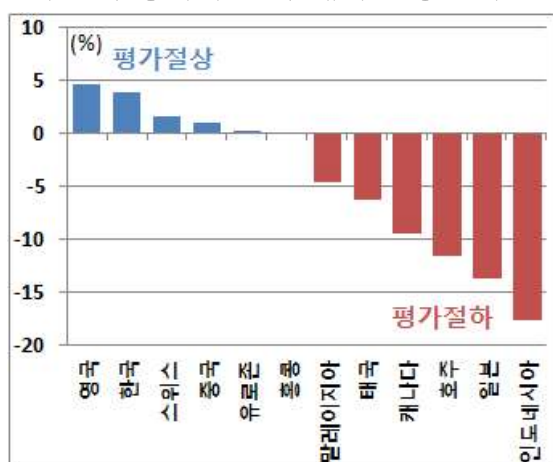
- 원/100엔 환율 하락 지속 : 국내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인한 원화 강세와 일본 양적완화 정책 등으로 인한 엔화 약세로 원/100엔 환율 하락이 지속
- 2013년 1월 이후 원화는 달러화 대비 3.9% 평가절상 되어 주요국 통화 중 높은 절상율을 보인 반면, 엔화는 13.5% 평가절하 되어 원/엔 환율 급락
- 2015년에도 일본의 추가적 양적완화 조치와 미국의 출구전략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엔화 약세 추세는 지속될 전망

<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주 : 종가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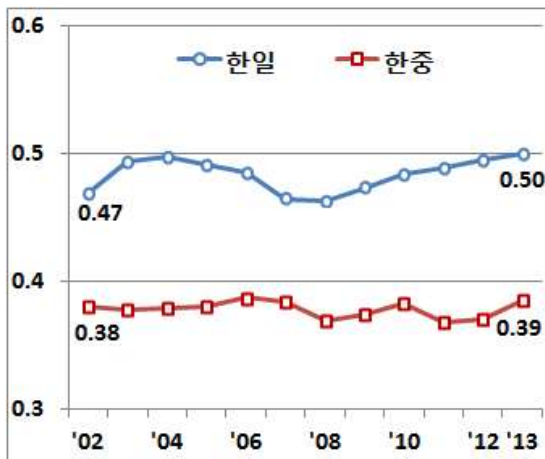
<주요국 통화의 달러 대비 절상·절하율>



자료 : 한국은행  
주 : 절상·절하율은 2013년 1월 평균 대비 2014년 9월 22일 현재 환율로 산출

- **국내 수출경쟁력 악화** : 엔화 대비 원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 경쟁력 저하 우려
  - 과거 엔저 시작 이후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기업의 수출단가 인하와 물량 확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2015년에 일본기업이 본격적인 수출단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큼
  - 또한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금융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어 원/엔 환율의 하락이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부정적 영향을 크게 줄 것으로 예상
  
- **국내 총수출 감소<sup>5)</sup>** : 국내 수출경쟁력 저하는 수출경기를 부진에 빠뜨릴 우려
  - 원/100엔 환율이 2014년 평균 990.7원(2014.1.1~9.22 평균 1,014.2원)에서 2015년 950원으로 하락할 때 한국 총수출이 4.2% 감소할 것으로 예상
  - 또한 2015년에 원/100엔 환율이 평균 900원까지 떨어질 경우 총수출이 8.8%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시사점) 국제공조를 통해 원/100엔 환율 급락을 방지하고, 제품의 질적 향상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강화 필요

< 한·중·일 간 수출경합도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이 UN comtrade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  
 주 : 1에 가까울수록 양국의 수출구조가 유사해 경쟁이 심화됨을 의미

< 원/100엔 환율 변동이 국내 총수출에 미치는 영향 >

원/100엔 환율		2014년 대비 2015년 국내 총수출 감소율
2014년 평균 가정치	2015년 평균 예측치	
990.7원	950원	-4.2%
	900원	-8.8%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주 : 1) 2014년 9월 22일까지 평균 환율은 1,014.2원  
 주 : 2) 2015년 총수출 감소율은 2014년 평균 원 /100엔 환율을 990.7원으로 가정된 결과

5) 현대경제연구원(2014.05), “원/100엔 환율, 1,000원 붕괴의 영향과 시사점”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이용하여 계산함.

### 3. 시사점

- 단기적으로 저성장·저물가 기조에서 탈출하고 중장기적으로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정책당국의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한 시점
- (재정정책) 2015년 예산을 확대편성하고 상반기에 조기 집행
  - 단기적으로 내수 진작을 위해서 민간소비 제고효과가 큰 노동 및 보육·가족·여성 분야 예산을 확대 편성
  - 중장기적으론 성장 및 고용 증대 효과가 큰 산업단지 활성화 및 해운·항만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고 낙후된 SOC시설에 대한 투자도 고려<sup>6)</sup>
  - 특히 재정의 60% 이상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여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국내 경기가 정상적인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조치 필요
- (통화정책)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견지
  - 2015년에도 경기 회복세가 미약한 가운데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이어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하고,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놔야 함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정책공조(Policy mix)는 각 정책이 갖는 부정적인 부분을 완화함으로써 정책의 경기 부양효과를 높일 수 있음
- (외환정책) 원/엔 및 원/달러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 확대에 대응
  - 환율 하락 속도 조절 및 기업의 환변동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조치 필요
    - 환율에 대한 기대의 쏠림 현상으로 환율이 급락하는 일이 없도록 미세조정
    - 환위험 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에게 환변동 보험 확대, 환리스크 관리 인력 교육 지원

6) 현대경제연구원(2013.3월), “추경의 시급성과 효과 극대화 방안” 참조.

- 원/100엔 환율의 과도한 하락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 제품의 성능 및 품질 향상 등 비가격적인 경쟁력 강화 필요
- 단기적으로 국가공조를 통해 원/100엔 환율 급락을 방지하여 기업이 환율 변화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확보
- 중장기적으로는 R&D투자를 통한 기술력 제고, 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비가격경쟁력을 높여 수출 산업의 환율 민감도를 낮추는 노력이 필요

○ (부동산정책)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통해 소비 진작, 건설투자 확대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유도

- 기존의 부동산시장 활성화 및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되, 부동산 심리를 위축시키는 세부 대책에 대한 조정 필요
- 국내 집 살 여력이 있는 가구는 약 569만 가구로 추정(그중 무주택자는 약 144만 가구). 저금리 공유형모기지 확대 등으로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을 유도하고, 유주택자에 대해서도 임대·상속 등을 위한 주택구입 촉진 정책 마련<sup>7)</sup>

○ (성장잠재력 강화) 30-50클럽의 위상에 걸맞게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인적자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 강화

- 단기적으로 신성장동력 확보 차원에서 R&D투자 확대, 제조업 국내 유턴 유인, 관광·의료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투자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 개선 등 추진
-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적자원 약화에 대비하여 여성·청년·고령층 등 취업에로계층을 노동시장으로 견인하고, 개성공단 등 북한 노동력과 외국인 근로자 활용방안 등도 모색

이준협 경제동향분석실장 (2072-6219, sododuk1@hri.co.kr)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

최성근 선임연구원 (2072-6223, csk01@hri.co.kr)

김광석 선임연구원 (2072-6215, gskim@hri.co.kr)

조규림 선임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오준범 연구원 (2072-6247, jboh19@hri.co.kr)

7) 현대경제연구원(2014.5월), “집 살 여력 있는 가구의 추계와 시사점” 참조.

## <별첨> 2015년 경제전망

### 1. 2015년 대외 여건 변화

#### ① 세계경기 : 회복세 미약

○ (현황) 2014년에 선진국은 미약한 회복세를 보이고 개도국은 성장세 부진

- 선진국 : 미국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나 일본과 유로존의 회복세는 미약
  - 미국 : 민간부문을 중심으로 소비와 투자, 생산, 고용 등 전반적인 성장세
  - 일본 : 4월 소비세 인상의 여파로 경제성장률이 급락하고, 물가상승 및 실질임금 하락으로 인한 소비 개선 미약
  - 유로존 : 금리인하 등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고실업과 저물가 지속,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수출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성장률 둔화세 지속
- 신흥개도국 : 성장세 부진
  - 중국 : 내수 중심의 구조조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소비 및 투자 위축 등으로 완만하게 성장세 둔화
  - 인도는 비교적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브라질 및 러시아는 둔화

#### < 주요 국가 경제성장률 추이 >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세계	3.5	-	-	-	-	3.2	-	-
선진국	1.4	-	-	-	-	1.3	-	-
미국	2.8	2.7	1.8	4.5	3.5	1.9	-2.1	4.6
일본	1.4	1.2	0.8	0.4	0.1	1.5	1.5	-1.8
유로존	-0.7	-0.2	0.3	0.1	0.3	-0.4	0.2	0.0
신흥개도국	5.1	-	-	-	-	4.7	-	-
중국	7.7	7.7	7.5	7.8	7.7	7.7	7.4	7.5
ASEAN-5	6.2	-	-	-	-	5.2	-	-
브라질	1.0	0.2	2.1	-0.6	0.5	2.5	-0.2	-0.6
러시아	3.4	0.4	0.3	0.3	0.4	1.3	0.1	0.3
인도	4.7	4.9	4.2	5.2	4.4	5.0	6.1	5.8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2014 July, 미국 상무부, 일본 내각부, Eurostat, 중국 국가통계국, 인도 중앙통계국, 브라질 중앙통계국, 러시아 중앙통계국.

주 : 1) 미국은 전기대비연율, 일본, 유럽, 브라질, 러시아는 전기대비, 중국, 인도는 전년 동기대비.

2)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

- (전망) 2015년 세계경기는 미국 경제의 견조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유럽, 중국 등의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이다
  - 선진국 : 미국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일본과 유로존 경기는 회복이 지연될 전망이다
    - 미국 : 고용의 꾸준한 개선 및 가계소득 확대, 기업투자 증대 등으로 뚜렷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일본 :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무역적자 지속과 경제 구조 조정이 지연되는 등의 제약 요인으로 경기는 매우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유로존 : 경기부양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디플레이션 우려, 고용 위축, 금융부실 확대 등으로 경기 회복세는 상당히 지연될 전망이다
  - 신흥개도국 :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 및 외국인투자자금 유출 우려 등으로 성장세는 5% 내외로 정체
    - 중국 : 내수 중심의 구조조정과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등으로 성장률은 완만한 하향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기타신흥국 : 전반적인 경기 회복 기조 속에 세계 교역의 미약한 회복, 국제원자재 가격 약세,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투자자금 유출 우려 등으로 정체

< IMF의 세계 각국 경제성장률 전망 >

(단위 : %)

구분	2014년(E)			2015년(E)		
	'14.1월	'14.4월	'14.7월	'14.1월	'14.4월	'14.7월
<b>세계</b>	<b>3.7</b>	<b>3.6</b>	<b>3.4</b>	<b>3.9</b>	<b>3.9</b>	<b>4.0</b>
<b>선진국</b>	<b>2.2</b>	<b>2.2</b>	<b>1.8</b>	<b>2.3</b>	<b>2.3</b>	<b>2.4</b>
미국	2.8	2.8	1.7	3.0	3.0	3.0
일본	1.7	1.4	1.6	1.0	1.0	1.1
유로존	1.0	1.2	1.1	1.4	1.5	1.5
<b>신흥개도국</b>	<b>5.1</b>	<b>4.9</b>	<b>4.6</b>	<b>5.4</b>	<b>5.3</b>	<b>5.2</b>
중국	7.5	7.5	7.4	7.3	7.3	7.1
ASEAN-5	5.1	4.9	4.6	5.6	5.4	5.6
브라질	2.3	1.8	1.3	2.8	2.7	2.0
러시아	2.0	1.3	0.2	2.5	2.3	1.0
인도	5.4	5.4	5.4	6.4	6.4	6.4

자료 : IMF(WEO, 2014 July).

주 : ASEAN-5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베트남을 의미.

② 세계 교역 : 완만한 증가세

○ (현황) 2014년에 선진국과 신흥개도국 모두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여 세계 교역량도 소폭 증가에 그침

- 세계 교역 : 유로존과 일본의 경기 회복세 부진, 신흥국의 대선진국 수출 증가세 미약 등으로 세계 교역은 소폭의 증가세에 머물고 있음
  - 유럽과 일본의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 부족, 미국의 제조업 생산 회귀 등으로 신흥국의 대선진국 수출이 크게 늘어나지 못하고 있음
  - 세계 자원의 최대 수요자인 중국의 구조조정 및 완만한 경제성장 등으로 원자재 및 설비투자 수요가 부진하여 수입 증가세 미약

○ (전망) 2015년에도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미약하여 세계교역은 완만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선진국 : 미국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유럽 경기의 미약한 회복세와 일본의 수출입 부진 등의 영향으로 2015년 선진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4% 중반에 머물 전망
  - 특히 미국은 경기 회복세 지속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생산의 국내 회귀와 셰일 가스 개발 확대로 원유 수입이 감소하는 등 수출입 증가세는 미흡
- 신흥개도국 : 선진국의 회복세가 미약하고 중국 경제의 완만한 하향세로 신흥개도국의 수출입 증가율은 6% 내외를 나타낼 전망
  - 2015년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고 중국의 원자재 수요 부진이 지속되어 신흥국 수출입 증가율은 소폭 상승에 그칠 전망

< 세계 수출입 전망 >

(단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E)	2015년(E)
세계 교역 증가율		2.8	3.0	4.3	5.3
수출	선진국	2.1	2.3	4.2	4.8
	신흥 개도국	4.2	4.4	5.0	6.2
수입	선진국	1.1	1.4	3.5	4.5
	신흥 개도국	5.8	5.6	5.2	6.3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14.



③ 국제 원자재 : 완만한 하락세

○ (현황) 2014년 국제 원자재 가격은 세계경기 회복 지연과 중국의 원자재 수요 감소 등으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 원유 :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급 여건과 미국의 원유 수입 감소 등으로 국제 원유 가격은 보합세
- 기타 원자재 : 세계경기 회복세 지연에 따른 수요 부진과 생산 및 재고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은 약세 흐름이 지속

○ (전망) 2015년에도 국제 원자재 가격은 미약한 세계경기 회복세,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영향으로 완만한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

- 원유 :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확대에 따른 공급 증가와 중국 등의 수요 증가세 부진, 글로벌 달러화 강세 등의 요인으로 국제유가는 하락세 전망
- 기타 원자재 : 생산과 재고량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과 선진국의 원자재 수요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기타 원자재 가격도 하향 안정세 전망

< 국제 유가 현황 및 전망 >

(단위 : 달러/배럴)

구분		2012	2013	2014			2015		
유종	전망기관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E)	연간(E)
두바이	CERA	109.1	105.6	105.3	106.3	105.8	104.2	102.6	103.4
브랜트	EIA	111.7	108.6	108.9	107.3	108.1	105.7	104.3	105.0
	PIRA	111.6	108.7	108.9	107.1	108.0	106.8	108.8	107.8

자료 : CERA(2014.8.7), EIA(2014.8.12), PIRA(2014.7.25).

주 : 1) 2014년 하반기부터 추정치.

2) CERA(미국 캠브리지에너지연구소), EIA(미국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산업연구소).

< 국제원자재 가격지수 현황 및 전망 >

(단위 : P, %)

구분	2012		2013		2014(E)		2015(E)	
국제원자재	110	(-8.3)	102	(-7.3)	98	(-3.9)	98	(0.0)
농산물	114	(-6.6)	106	(-7.0)	105	(-0.9)	104	(-1.0)
금속	96	(-15.0)	91	(-5.2)	85	(-6.6)	86	(1.2)
귀금속	138	(1.5)	115	(-16.7)	101	(-12.2)	100	(-1.0)

자료 : World Bank(2014.7).

주 : 1) 국제원자재 지수(2005년 = 100p)는 원유 미포함.

2) ( ) 안은 전년대비 증감률.

3) 금속에는 철광석, 알루미늄, 구리, 납, 니켈, 주석, 아연 등이 포함됨.

④ 주요국 환율 : 달러 강세 기조 속 변동성 확대

○ (현황) 2014년 하반기에 달러화는 강세, 유로화와 엔화는 약세

- 달러화 : 미국 경기 회복세 지속 및 양적완화 축소,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하반기 달러화 강세 흐름
- 기타 주요국 통화 : 기타 주요국 통화는 전반적인 달러화 강세 기조와 경기 회복 지연, 완화적 통화 정책 등으로 약세

○ (전망) 2015년에는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에 유로화 및 엔화는 약세, 위안화는 상대적인 강세를 띠고,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파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 달러화 : 미국 경기 회복 및 2015년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미 달러화는 올해보다 강세를 띠게 될 전망
- 유로화 : 유로존 경기 회복 지연과 유럽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지속되면서 유로화는 약세 전망
- 엔화 : 일본 경기 회복이 미진한 가운데 일본중앙은행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지속으로 엔화 역시 약세 전망
- 위안화 :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이 상승하고 주요국 대비 건조한 경상수지 흑자 등으로 위안화는 상대적으로 강세 전망
- 변동성 확대 :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투자자금이 신흥국에서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2014년보다는 확대될 전망

< 주요 통화의 대미달러 환율 추이와 전망 >

구분	달러/유로				엔/달러				위안/달러			
	2014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2014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2014년	3개월후	6개월후	12개월후
평균	1.36	1.28	1.25	1.23	102.9	108.0	109.0	110.0	6.17	6.12	6.08	6.09
최고	-	1.34	1.33	1.34	-	112.0	115.0	121.0	-	6.25	6.20	6.15
최저	-	1.22	1.17	1.10	-	102.0	99.0	98.0	-	5.98	5.95	5.93

자료 : 국제금융센터(2014.9.19)

주 : 1) 3개월후, 6개월후 및 12개월후는 2014년 9월 기준(14개 주요 국제투자은행의 전망치).  
2) 2014년은 1월~9월까지 평균.

## 2. 2015년 국내 경제 전망

### ① 2015년 국내 경제 전망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기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6.7	1.9	1.8	1.9	1.6	4.3	3.0
	설비투자 (%)	-1.5	7.6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7.3	6.1	5.9	6.0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55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4	65.0	65.6	65.3	66.0	66.5	66.2

② 소비 : 증가세 미흡

○ (현황) 2014년에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 미약 등으로 회복세 지연

-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세 미약, 세월호 충격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등으로 회복세가 지연
- 큰 폭의 취업자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 증가율의 둔화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부진하고, 가계부채 누증 및 세월호 충격 등으로 소비 심리 악화

< 민간소비와 주요 변수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천명)

구 분	2012년	2013년					연간	2014년			
		1/4	2/4	3/4	4/4	1/4		2/4	7월	8월	
민간소비(국민계정)	1.9	1.7 (-0.1)	2.1 (0.7)	2.1 (1.0)	2.2 (0.6)	2.0	2.5 (0.2)	1.5 (-0.3)	-	-	
소매판매	2.4	0.3 (-1.0)	1.2 (0.9)	0.7 (0.8)	1.2 (0.3)	0.8	2.5 (0.3)	0.7 (-0.5)	0.6 (0.3)	2.1 (2.7)	
서비스생산	1.6	0.9 (0.2)	1.7 (0.4)	0.8 (0.2)	2.1 (0.9)	1.4	1.9 (0.5)	1.4 (0.0)	2.7 (-0.3)	2.1 (0.3)	
실질임금	3.1	2.1	3.4	2.5	2.1	2.5	1.8	0.2	-	-	
가계부채	5.2	5.1	5.5	5.6	6.0	6.0	6.4	6.2	-	-	
취업자증가수(	437	257	324	421	541	386	729	464	505	594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고용노동부.

주 : 취업자증가수는 전년동기대비 증감, ( )안은 전기대비 증감률.

○ (전망) 2015년에 민간소비는 실질소득 증가율 부진 및 소비심리 회복 지연 등으로 미흡한 증가세를 보일 전망

- 민간소비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보이겠지만, 실질임금 상승률 둔화, 가계부채 누증으로 인한 원리금 상환 부담 등으로 소비증가율은 경제성장률을 하회
- 민간소비는 상반기 3.0%, 하반기 2.6%로 연간 2.8%의 증가율을 기록할 전망

< 민간소비 추이와 전망 >

(전년동기대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민간소비	1.9	2.0	2.0	2.6	2.3	3.0	2.6	2.8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 하반기부터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③ 건설투자 : 완만한 회복세

○ (현황) 2014년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급락 등에 따라 회복세 둔화

- 정부의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에 따라 주택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2013년 까지 급락한 건설수주의 영향으로 2014년 건설투자 회복세 미약
- 건설수주는 건설투자에 약 1년 6개월 선행하는 선행지수로, 2012년 3/4분기부터 2013년 3/4분기 까지 큰 폭의 하락세 기록
- 다만 주거용 건설투자의 경우 지속적인 부동산 정책의 영향으로 회복세

< 건설투자 및 주요 선행지수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구 분	2012	2013					연간	201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건설투자	-3.9	1.9 (6.5)	9.8 (4.6)	8.8 (0.2)	5.4 (-5.2)	6.7	4.3 (5.1)	0.2 (0.4)	-	-	
건설기성(불변)	-5.0	4.4 (3.5)	15.0 (6.3)	10.5 (-0.1)	9.7 (-0.7)	10.1	6.5 (1.5)	0.1 (0.2)	-0.8 (-1.5)	-0.4 (1.0)	
건설수주(경상)	-6.2	-40.8 (-40.6)	-29.5 (35.1)	-10.6 (-9.3)	22.4 (68.1)	-15.3	15.5 (-44.0)	26.1 (47.6)	21.6 (-24.7)	79.3 (22.3)	
건축허가면적	-0.5	-12.4 (-33.3)	-14.6 (18.4)	-3.4 (4.4)	-0.2 (21.0)	-7.3	18.4 (-20.9)	21.6 (21.7)	9.0 (-1.6)	27.7 (0.5)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국토교통부.

주 : ( )은 계절조정 전기대비임.

○ (전망) 2015년에는 건설수주 회복 및 정부의 SOC 예산 확대, 주택건설경기 개선 등의 영향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전망

- 건설투자는 건설수주 회복(2013년 4/4분기 이후 회복), 정부 SOC 예산 확대, 부동산대책에 따른 재건축 및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요 증가, 산업단지 건설 확대, 대규모 시설공사 진척 등의 영향으로 2015년 하반기부터 뚜렷한 회복세
- 건설투자는 2015년 상반기 1.6%, 하반기 4.3%로 연간 3.0%의 증가율 전망

< 건설투자 전망 >

(단위 : 전년동기대비, %)

	2012	2013	2014			2015(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건설투자	-3.9	6.7	1.9	1.8	1.9	1.6	4.3	3.0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④ 설비투자 : 증가세 둔화

○ (현황) 2014년에 설비투자는 기저효과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세

- 2014년 설비투자는 기저효과와 함께 규제 완화 등 투자활성화 정책, 원자재가격 약세 지속 등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다만 경기회복세 지연에 따른 기업투자심리 위축, 대중 수출 부진과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기업의 수익성 저하 등은 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설비투자와 주요 변수 추이 >

(단위 : 전년동기대비%, p)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설비투자(국민계정)	0.1	-12.7 (1.5)	-3.9 (1.0)	1.5 (2.7)	10.9 (5.6)	-1.5	7.3 (-1.9)	7.7 (1.1)	-	-
설비투자	-2.8	-13.1 (-3.1)	-4.0 (1.1)	2.7 (5.0)	10.4 (5.9)	-1.3	5.9 (-5.2)	6.2 (2.2)	2.8 (3.4)	-9.8 (-10.6)
국내기계수주	-13.9	-11.4 (6.8)	8.8 (3.9)	2.2 (-6.9)	32.4 (27.7)	6.7	17.9 (-2.8)	4.4 (-9.6)	-6.9 (-1.5)	153.6 (140.6)
설비투자조정압력	-0.7	-2.6	-1.6	-1.7	0.0	-1.4	-0.6	-0.9	2.6	-4.1
기업경기지수(BSI)	66	73	75	73	75	75	80	76	73	71 [73]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무역협회.

- 주 : 1) ( )은 계절조정 처기대비임. 국내기계수주는 선박제외.
- 2) 설비투자조정압력은 (제조업생산증가율)-(제조업능력증가율)임.
- 3) BSI [ ]은 9월 전망치임.

○ (전망) 2015년에 설비투자는 미약한 수출 증가세 등으로 증가세 둔화

- 2015년 설비투자는 세계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미약한 수출증가세, 투자심리 개선 미흡 등으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될 전망
- 기업투자심리 회복세가 부진한 가운데 향후 미국 금리 인상 시 금융 불안 등은 투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15년 설비투자는 상반기 4.2%, 하반기 6.0%로 연간 5.1% 증가할 전망

< 설비투자 추이와 전망 >

(전년동기대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설비투자	0.1	-1.5	7.6	3.9	5.7	4.2	6.0	5.1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⑤ 지식재산생산물투자 : 견조한 성장세

○ (현황) 2014년에 지재투자는 기업의 연구개발(R&D)투자 확대 등으로 높은 증가율이 지속되고 있음

- 지재투자는 주요 기업들의 경기회복에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 확대와 정부의 R&D 정책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으로 증가세 지속
- 다만, 세월호 충격 등 내수 침체와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에 따른 기업투자심리 위축 등이 제약 요인으로 작용

< 지식재산생산물투자와 주요 변수 추이 >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2	2013					연간	2014			
		1/4	2/4	3/4	4/4	1/4		2/4	7월	8월	
지재투자(국민계정)	8.6	6.6 (9.4)	7.3 (-2.2)	5.3 (1.2)	9.7 (1.8)	7.3	7.3 (6.5)	5.7 (-3.6)	-	-	
연구개발투자	9.5	7.4 (8.2)	9.8 (-1.5)	7.8 (1.6)	9.7 (1.5)	8.7	9.0 (7.4)	6.6 (-3.7)	-	-	
기타지재투자	6.5	4.1 (12.3)	1.3 (-4.0)	-1.0 (0.0)	9.6 (2.6)	3.7	2.2 (3.8)	3.0 (-3.0)	-	-	
연구개발서비스	5.6	5.5	9.1	5.2	5.2	6.2	6.8	9.5	11.4	3.5	
출판영상통신서비스	3.0	2.7	0.7	0.3	4.1	1.9	1.1	2.2	1.6	1.0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주 : ( )은 계절조정 전기대비임.

○ (전망) 2015년 지재투자는 기업과 정부의 R&D 투자 확대와 규제 완화 등 정책 지원 확대 등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지재투자는 기업의 선제적인 R&D 투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예산과 정책 지원이 강화되면서 견조한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
- 기술 및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기업의 연구소 및 연구 인력 투자가 늘어나고, 정부의 R&D 예산 및 정책 지원 등도 확대
- ※재정운용계획 R&D 분야 : '14(17.8조원)→'15(18.8조원)→'16(19.6조원)→'17(20.1조원)

- 2015년 지재투자는 상반기 7.3%, 하반기 7.0%로 연간 7.1% 증가할 전망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추이와 전망 >

(전년동기대비%)

	2012	2013	2014			2015(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지식재산생산물투자	8.6	7.3	6.1	5.9	6.0	7.3	7.0	7.1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⑥ 대외 거래 : 완만한 증가세

○ (현황) 2014년 수출은 세계경기의 미약한 회복 등으로 회복세 지연, 수입은 저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 전환

- 수출 : 2014년 수출은 미국의 한파와 신흥국 경기 둔화 등에 따른 세계 경기 회복세 위축과 對중국 수출 둔화 등으로 회복 지연
- 수입 : 수입은 세월호 사태 등의 영향으로 인한 내수 침체에도 불구하고, 저저효과와 원화강세 등의 영향으로 증가세로 전환
- 경상수지 : 수출과 수입의 미약한 회복세로 2013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수출입 증가율 및 경상수지, 무역수지 추이>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경상수지	508	105	208	238	248	799	151	241	78	73
무역수지	283	56	144	108	133	440	52	150	23	34
수출 (증감률)	5,479 (-1.3)	1,353 (0.4)	1,412 (0.7)	1,368 (2.7)	1,464 (4.7)	5,596 (2.1)	1,376 (1.7)	1,457 (3.3)	482 (5.2)	462 (-0.2)
수입 (증감률)	5,196 (-0.9)	1,297 (-3.0)	1,268 (-2.8)	1,260 (0.3)	1,331 (2.5)	5,156 (-0.8)	1,324 (2.1)	1,308 (3.2)	459 (5.8)	429 (3.1)

자료 : 한국무역협회, 한국은행.

○ (전망) 2015년 수출과 수입은 세계경기의 회복세가 미흡하고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4%대의 완만한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 수출입 경기는 완만한 회복 기조를 보이겠지만, 대중 수출 부진과 엔화 대비 원화의 상대적인 강세로 증가세가 다소 제약될 전망
- 경상수지는 수입의 상대적인 증가세로 2014년보다 줄어든 680억 달러 전망
- 수출은 연간 4.4%, 수입은 연간 4.9%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수출입과 경상수지, 무역수지 전망 >

(단위 : 억 달러, 전년동기대비%)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경상수지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출 (증감률)	5,479 (-1.3)	5,596 (2.1)	2,833 (2.5)	2,936 (3.7)	5,770 (3.1)	2,949 (4.1)	3,074 (4.7)	6,023 (4.4)
수입 (증감률)	5,196 (-0.9)	5,155 (-0.8)	2,631 (2.6)	2,705 (4.4)	5,336 (3.5)	2,757 (4.8)	2,840 (5.0)	5,597 (4.9)

자료 : 한국은행, 무역협회.

주 : 2014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⑦ 고용 : 호조세 지속

○ (현황) 2014년에 정부의 일자리대책 등으로 고용여건 개선 지속

-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책 등에 힘입어 중장년층 및 여성을 중심으로 신규취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고용률도 개선
  - 다만 구직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실업률도 함께 상승하는 추세

< 고용 관련 지표 추이 >

(전년동기대비, 천명, %)

구 분	2012 년	2013년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신규취업자수	437	257	324	421	541	386	729	464	505	594
고용률(15-64세)	64.2	63.0	64.8	64.9	65.0	64.4	64.4	65.6	66.0	65.7
실업률	3.2	3.6	3.1	3.0	2.8	3.1	4.0	3.7	3.4	3.3

자료 : 통계청.

○ (전망) 2015년 내수경기의 완만한 회복과 고용여건 개선 등으로 고용 호조세가 지속될 전망

- 미진한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중장년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취업자로의 대규모 전환 흐름이 지속될 전망
  - 고용률 및 실업률 지표는 호조를 보일 것이나, 기저효과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으로 신규취업자수는 2014년보다 소폭 축소
- 신규취업자는 연간 약 40만명, 고용률과 실업률은 각각 66.2%, 3.4% 전망

< 고용 관련 지표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천명,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신규취업자수	437	386	567	400	480	350	460	405
고용률(15-64세)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실업률	3.2	3.1	3.8	3.4	3.6	3.4	3.3	3.4

자료 : 통계청.

주 : 2014년 상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⑧ 물가 : 저물가 지속

○ (현황) 2014년에 소비자물가는 미약한 내수 경기, 환율 하락 및 원자재가 격 하락 등으로 저물가 기조 지속

- 국내 경제의 디플레이션 갭이 지속되면서 수요 측 물가상승압력이 약하고 원화 강세 및 국제 원자재가격 안정으로 공급 측 물가상승압력도 낮음
- 다만 통화증가율(M2)은 2013년에 비해 높아졌으나, 통화유동속도가 떨어지면서 실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음

< 물가상승률과 주요 수급요인 추이 >

(전년동기대비%)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1/4	2/4	3/4	4/4	연간	1/4	2/4	7월	8월
소비자물가	2.2	1.6 (0.8)	1.2 (-0.1)	1.4 (0.4)	1.1 (0.0)	1.3	1.1 (0.9)	1.6 (0.3)	1.6 (0.1)	1.4 (0.2)
GDP갭률	-0.6	-1.1	-0.8	-0.6	-0.5	-1.1	-0.6	-0.3	-	-
수입물가	-0.7	-10.0	-8.0	-5.9	-5.3	-7.3	-4.1	-7.5	-8.6	-9.9
통화(M2)	4.8	4.8 (1.9)	4.9 (0.8)	4.2 (1.2)	4.6 (0.6)	4.6	5.0 (2.7)	5.7 (1.5)	7.4 (1.2)	-

자료 : 통계청, 한국은행, GDP갭은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치.

주 : 1) GDP갭률=(실제GDP-잠재GDP)/잠재GDP\*100.

2) ( )은 전기대비임.

○ (전망) 2015년 소비자물가는 원화 강세 유지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저물가 추세 지속

- 2015년에도 디플레이션갭이 당분간 지속되고, 원화 강세 및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저물가 기조가 지속될 전망
- 다만 농산물가격 상승 우려 및 경기활성화 정책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질 가능성 존재

-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2.0%, 하반기 1.9%로 연간 1.9% 전망<sup>8)</sup>

< 소비자물가 추이 및 전망 >

(전년동기대비 %)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소비자물가	2.2	1.3	1.4	1.9	1.7	2.0	1.9	1.9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4년 하반기부터는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

8) 담배값 인상 등 정부의 정책효과는 제외된 전망치.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8	3.7	1.2	2.8	0.1	1.9	2.7	1.8	4.5	3.5	1.7
유로 지역	-0.6	-0.1	-0.3	-0.1	-0.5	-0.4	-0.2	0.3	0.1	0.3	1.1
일본	2.0	3.7	-1.7	-3.1	-0.2	1.7	5.2	3.4	1.4	-0.2	1.6
중국	7.7	8.1	7.6	7.4	7.9	7.7	7.7	7.5	7.8	7.7	7.4

주 1) 2014년 전망치\*는 IMF 2014년 7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유로 지역은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9월 25일	10월 1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70	2.46	3.03	2.50	2.39	-0.11%p
	엔/달러	85.86	98.51	105.04	108.75	108.89	0.14¥
	달러/유로	1.3222	1.3031	1.3799	1.2751	1.2623	-0.0128\$
	다우존스지수(p)	12,938	14,910	16,577	16,945.8	16,804.7	-141.1p
	닛케이지수(p)	10,395	13,677	16,291	16,374.1	16,082.3	-291.8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2.82	2.88	2.86	2.33	2.22	-0.11%p
	원/달러(원)	1,070.6	1,142.0	1,055.4	1,042.6	1,062.7	20.1원
	코스피지수(p)	1,997.1	1,863.3	2,011.3	2,034.1	1,991.5	-42.6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12년말	2013년		2014년			
		6월말	12월말	9월 25일	10월 1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90.89	96.52	98.55	93.38	90.77	-2.61\$
	Dubai	107.99	100.38	107.88	94.92	93.52	-1.40\$
CRB선물지수	294.78	275.62	280.17	279.84	278.58	-1.26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E)			
			상반	하반(E)	연간(E)	상반	하반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2.3	3.0	3.7	3.6	3.6	3.5	3.6	3.6
	민간소비 (%)	1.9	2.0	2.0	2.6	2.3	3.0	2.6	2.8
	건설투자 (%)	-3.9	6.7	1.9	1.8	1.9	1.6	4.3	3.0
	설비투자 (%)	0.1	-1.5	7.6	3.9	5.7	4.2	6.0	5.1
	지재투자 (%)	8.6	7.3	6.1	5.9	6.0	7.3	7.0	7.1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508	799	392	408	800	320	360	680
	무역수지 (억 달러)	283	440	202	231	433	192	234	426
	수 출 (억 달러)	5,479	5,596	2,833	2,936	5,770	2,949	3,074	6,023
	(증가율, %)	(-1.3)	(2.1)	(2.5)	(3.7)	(3.1)	(4.1)	(4.7)	(4.4)
	수 입 (억 달러)	5,196	5,156	2,631	2,705	5,336	2,757	2,840	5,597
	(증가율, %)	(-0.9)	(-0.8)	(2.6)	(4.4)	(3.5)	(4.8)	(5.0)	(4.9)
소비자물가 (평균, %)	2.2	1.3	1.4	1.9	1.7	2.0	1.9	1.9	
15~64세 고용률 (%)	64.2	64.4	65.0	65.6	65.3	66.0	66.5	66.2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